

---

---

# 美國老人의 所得規模와 構成에 있어서의 男女差異

鄭 京 姬

---

---

본 研究는 일터와 家庭에서의 男女간의 역할수행의 差異가 美國人의 老後의 經濟的 資源에 어떠한 影響力을 갖고 있는가를 1987~'88년에 걸쳐 위스콘신 대학에서 실시한 『가구 및 가족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밝혀보고자 하였다. 첫째로 所得規模와 構成에 있어서 男女老人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1) 女子老人의 個人所得額은 男子老人이 갖고 있는 個人所得의 절반이며, (2) 女子老人들의 貧困經驗率이 훨씬 높으며, (3) 女子老人의 家口所得에 대한 寄與度가 낮고, (4) 女子老人들이 社會保障所得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반면, 그들의 年金所得 依存度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로 男子老人들과 女子老人들의 所得規模와 構成에 유의한 影響力을 갖고 있는 變數들이 동일한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男女老人 모두에게 教育水準이나 人種과 같은 背景變數가 所得의 規模에 지속적인 影響力을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일과 家族과 연관된 變數는 男女老人에게 상이한 影響力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男子老人들에게는 背景的 變數와 더불어 일과 관련된 變數들이 유의미한 決定要因임에 비하여, 家族과 관련된 變수들은 큰 影響力을 갖지 못한다. 반면에 女子老人들의 所得規模와 構成에 있어서는 일이 아니라 家族生活이 큰 影響力을 갖고 있다.

---

筆者: 本院 責任研究員

▶ 원고를 검독하여 주신 李顯松·洪程基 博士께 감사드립니다.

## I. 序 論

美國老人들의 生活水準이 지난 4世紀동안 급격히 向上되어 왔지만, 經濟的 資源에 있어서의 男女差異는 아직도 남아 있다(Crystal and Shea, 1992; Duncan and Smith, 1989; Holden, 1989). 이는 全生涯에 걸쳐 이루어진 女性和 男性의 일과 家庭에서의 役割遂行이 다르고, 그에 따라서 老後의 삶의 樣相도 相異한 傾向이 있기 때문이다.

女性들의 有給勞動에의 參與가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이 男性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으며, 女性이 가족을 보살피고 (caregiving) 친척들간의 紐帶를 두텁게 하는 일(kin-keeping)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생각이 많다(Rosenthal, 1985). 이러한 社會的 態度는 女性이 家庭과 일을 兩立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老年期를 고립된 삶의 한 단면이 아니라 제 삶의 단계와 밀접히 聯關되어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生涯史的 接近(life course perspective)에 의하면, 이러한 일생 동안의 일과 家庭의 役割遂行類型이 老年期の 삶에 갖는 누적된 影響力은 매우 크다(Elder, 1985; Hagestad, 1990). 즉, 일반적으로 女性和 男性은 일과 家庭에서의 役割遂行의 經驗이 다르므로 노년기에 그들이 갖는 經濟的 資源도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Mincer and Ofek, 1982; O'Rand and Henretta, 1982; Velsor and O'Rand, 1984).

老年期를 그 전 단계의 모든 차이점들이 사라지는 시기로 간주하는 경향 때문에, 老年層을 同質的인(homogeneous) 社會集團으로 보는 스테레오타입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老年學者들이 '노인들'을 연령, 가구구조, 인종, 성 등에 따른 多樣한 特性을 갖고 있는 下位集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Streib and Binstock, 1990). 특히 男女差異(gender differences)에 관한 연구가 女性學 研究라는 큰 흐름속에서 老年學에 대두되고 있다(Streib and Binstock, 1990; Thompson, 1994). 이는 Rossi가 지적하고 있는대로

(1985), 性を 고려하지 않은 老年理論은 적절한 이론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인식에 기초하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研究는 일터와 家庭에서의 役割遂行의 차이점이 老後의 所得에 어떠한 影響力을 갖고 있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sup>1)</sup>. 구체적으로는 첫째, 所得規模와 構成에 있어서 男女 老人간에 統計的으로 有意味한 差異가 있는지 둘째, 男女老人의 所得規模와 構成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들이 同一한지 여부를 探索하고자 한다.

## II. 資料와 分析方法

研究質問에 答하기 위하여 Wisconsin대학에서 수행한 『家口와 家族에 관한 調査(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資料를 使用하였다. 1987년부터 1988년에 걸쳐 美國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13,017명에 대한 調査가 이루어졌다(Sweet, Bumpass and Call, 1988). 이 調査는 美國家族의 現狀과 問題把握에 關心을 둔 包括的인 調査로 家族構造, 過程, 關係등에 관한 內容을 包含하고 있다. 또한 學制間的(interdisciplinary) 視覺에서 이루어진 全國規模의 無作爲抽出 標本이다. 한편 본 調査는 현재 美國에서 問題가 되고 있는 婚前同居와 結婚의 關係, 離婚과 그로 인한 家族關係의 變化, 少數集團의 家族問題를 深度있게 分析하기 위하여 그러한 集團에 대한 過標集(oversampling)을 하였다. 본 研究는 65세 이상의 應答者만을 分析對象으로 하였고, 샘플크기는 2,020이다.

諸經濟的 資源 중 所得의 規模와 構成에 대한 分析이 이루어졌으며, 過標集(oversampling)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標本加重值를 사용하여 계산된 퍼센테이지를 제시하였다. 男女간에 所得規模와 構成에 있어서

1) 이 글은 博士論文의 일부로 지면의 제한으로 인하여 男女差異에 관한 分析 중 所得에만 초점을 두어 整理되었다.

統計적으로 有意한 差異가 있는가는 각 婚姻狀態別 多變量分析(multivariate analysis)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所得規模와 構成의 決定要因에 男女差異가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서는 男子老人과 女子老人 각각에 대하여 일과 家庭과 연관된 變數를 포함하는 回歸모델에 기초한 多變量 分析을 하였다. 從屬變數가 연속형일 경우는 回歸分析을, 범주형일 경우는 로지스틱分析(logistic regression)을 하였다. 分析에 사용된 變數들은 <表 1>에 정리되어 있다. 본 研究가 관심을 두고 있는 일과 家族과 연관된 變數외에도 所得에 影響力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教育水準, 人種, 年齡등이 獨立變數로서 分析에 포함되었다. 男女老人 모두에게 家族과 연관된 變數들은 婚姻狀態와 子女數이다. 그러나 일과 연관된 變數들은 다르다<sup>2)</sup>. 女子에게는 家事와 就業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수월하지 않았기 때문에, 家族과 연관된 變數들- 子女養育 또는 配偶者의 喪失 -이 勞動市場에 들어가거나 나오는데 있어서 중요한 役割을 한다. 따라서, 女子老人들은 다양한 就業類型을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Elder와 Rockwell의 就業類型分類에 따라, 傳統型, 中斷型, 兼職型, 不規則型의 4가지 類型을 설정하였다. 이 就業類型은 結婚과 각 出產時期에 걸친 就業記錄을 기초로 하여 構成되었다. 傳統型은 일생동안 전혀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結婚 또는 첫자녀 출산후 일을 그만둔 類型이다. 또한 兼職型은 적어도 마지막 子女出產까지 계속 일을 한 女性의 경우이다. 즉 出產과 일을 並行한 경우이다. 中斷型은 結婚 또는 出產으로 일을 중단했다가 마지막 子女出產後 다시 일을 시작한 경우이다. 위의 세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不規則型으로 定意하였다.

2) 女子老人의 경우에도 사회경제적위치에 관한(SEI) 점수를 포함한 分析을 하였으나 유의미하지 않고  $R^2$ 을 의미있게 증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하였다. 따라서 就業類型만을 포함한 多變量分析結果가 제시될 것이다.

〈表 1〉 分析에 使用된 變數들

變數들	定意	男子	女子 <sup>5)</sup>
應答者數		709名	1,311名
教育水準	- 教育年數	平均 10.8년	平均 10.7년
人種	- 白人	89.4%	89.6%
	- 有色人種	10.6%	10.4%
年齡	- 年齡(年數)	平均 72.5歲	平均 73.6歲
子女數	- 子女數	平均 2.9名	平均 2.8名
婚姻狀態 <sup>1)</sup>	- 有配偶	78.9%	40.7%
	- 死別	14.0%	47.2%
	- 離婚	4.1%	7.2%
	- 未婚	3.1%	4.8%
SEI <sup>2)</sup>	- 50세때 직업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관한 점수	平均 3,499.2	平均 3,467.6
就業期間 <sup>3)</sup>	- 전일고용기간	平均 40.2년	平均 17.4년
就業類型 <sup>4)</sup>	- 傳統型: 전혀 일을 하지 않았거나, 결혼 또는 첫자녀 출산후 일을 그만둠.	-	13.4
	- 兼職型: 적어도 마지막 자녀출산까지 계속 일을 함.	-	40.5
	- 中斷型: 마지막 자녀출산후 일을 다시 시작함.	-	36.7
	- 不規則型: 기타의 경우	-	9.4

註: 1) 分析에서는 死別과 離婚이라는 2개의 가변수(dummy variables)가 사용되었고, 準據集團은 유배우임.

2) 分析에서는 點數에 1,000을 곱하여 사용함.

3) 分析에서는 실제 개월수에 1,000을 곱하여 사용함.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되었던 취업의 경우만 조사되어, 단기적인 취업이나 직업의 종류 등을 파악하지는 못하였음.

4) 分析에서는 兼職型, 中斷型, 不規則型의 3개의 加變數(dummy variables)가 사용되었고, 準據集團은 傳統型임.

5) 分析에서는 男子는 0, 女子는 1로 기록하여 加變數(dummy variable)로 사용되었고, 準據集團은 男子임.

반면, 男子들의 경우는 그들이 대부분 同質的인 就業類型(위의 類型分類에 의하면 兼職型)을 갖고 있기 때문에, 취업유형 대신 18세 이후 이루어진 勞動參與의 期間(有給勞動 개월수로 측정)과 50세 당시 직업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관한 점수(Socio-economic Index Score)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 Ⅲ. 所得의 規模와 構成에 있어서의 男女差異

본 절에서는 老人들의 個人所得, 家口所得, 家口所得에 대한 個人所得의 比率, 貧困經驗, 所得의 構成에 있어서의 男女差異가 檢討될 것이다. 個人所得은 經濟的 安寧을 보여주는 보편적인 指標로 老人들 자신으로부터 發生하는 現金所得을 보여주게 된다. 家口所得 또한 중요한 指標이다. 실제 家口내에서 所得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는 알 수 없지만, 老人들이 家口收入을 共有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또한, 이 두 所得을 比較함으로써 老人들의 經濟的 自立度를 파악할 수 있다. 즉 家口所得에 대한 個人所得의 比率이 높을수록 老人들이 經濟的 獨立性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貧困狀態에 있는가 여부 또한 중요한 指標로, 所得이 公式的인 貧困線보다 적은 사람들은 社會的으로 脆弱한 集團이다. 일반적으로 貧困이 女性에게 集中的으로 發生하고 있으며, 이러한 社會的 過程은 '貧困의 女性化'로 概念化되고 있다(Pearce, 1978). '貧困의 女性化'에 대한 關心이 지난 몇년간 增大되었지만, 關心은 주로 편모나 젊은여성에게만 과도하게 集中되었었다(Garfinkel and McLanahan, 1987). 따라서 老年期の 貧困의 女性化에 대한 關心이 필요한 실정이다(Minkler and Stone, 1985).

공식적인 貧困率외에도 '貧困接近層(near poor)'이나, '中間에 놓인 사람들(Tweeners)'도 關心을 두어야 하는 集團이다. 貧困接近層은 빈

곤선과 빈곤선의 125% 사이의 所得을 갖고있는 사람들이며, '中間에 놓인 사람들'은 빈곤선의 100%와 200%사이의 所得을 갖고 있는 經濟的으로 不安定한 中産層 老人들이다(Smeeding, 1986). 1970, '80년대부터 이루어진 老人의 貧困率 低下에 比較하여 볼 때 貧困接近層의 감소율은 매우 낮다. '중간에 놓인 사람들'은 중간에 놓여있기 때문에 - 경제적으로 안전할 만큼 필요하지도 않고, 그러나 정부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가난하지도 않은 - 예기치 않은 經濟的 어려움에 容受할 可能性이 높다.

所得規模뿐만 아니라 所得構成 또한 중요한 側面으로 各別한 관심이 요구된다. 所得規模에 있어서의 男女老人間의 差異는 主要所得源들의 相異한 役割을 검토하여 볼 때 그 理解가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個人所得은 就業, 社會保障額, 年金, 利子, 政府補助 등의 모든 所得源으로부터 받게되는 所得을 포함한다. 그중 특히 社會保障과 年金所得이 노인들의 삶에 있어 믿을만 하고 중요한 所得源이다. 1967년부터 1984년 사이에 社會保障額은 두배로 增大하였고 이러한 補助가 老人들의 所得增大과 貧困率 低下에 막대한 寄與를 해왔다. 社會保障이 平準化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비하여, 年金은 階層化를 深化하는 所得源이다. 年金이 수혜자의 教育水準과 밀접한 關係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Crystal et al., 1992).

## 1. 所得規模에 있어서의 男女差異

<表 2>는 男子老人과 女子老人 사이에 所得規模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女子老人의 個人所得은 平均 9,400불로 男子老人의 20,400불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個人所得에 있어서의 男子老人의 優位는 未婚老人의 경우만 그 정도가 弱화되는데, 이는 個人所得의 形成에 있어서 結婚이 女性에게 否定的으로 作用함을 보여주는 것이다(表 3 참조).

〈表 2〉 所得에 있어서의 男女差異

平均所得	男子老人	女子老人	男子老人對比 女子老人(%)
個人所得(\$)	20,400	9,400	46.1
家口所得(\$)	28,200	16,500	58.5
家口所得에 대한 個人 所得의 比率(%)	72.3	57.0	
應答者數	582	1,025	

個人所得에서 보여지는 差異는 家口所得<sup>3)</sup>에서도 발견되는데, 女子老人들의 平均家口所得은 16,500불로 男子老人(28,200불)의 58.5%에 해당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배우 老人의 경우 夫婦가 그들의 所得을 합쳐서 사용하기 때문에, 男女差異가 個人所得의 경우보다 적어 性的 統計的 影響力은 없다(表 3 참조). 반면, 死別과 離婚의 경우는 家口所得에 있어서의 男女差異가 크다. 특히 死別한 女子老人들은 死別한 男子老人에 비하여 所得을 적게 갖고 있다.

한편 男子老人들의 경우 全體家口所得의 72%가 자신에게서 기인하고 있어 自助的인 반면, 女子老人의 경우는 다른 家口成員의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家口所得에 대한 個人所得의 比率이 57%에 불과하여, 女子老人들이 配偶者의 죽음, 이혼, 다른 가족성원들의 질병등 家族과 관련한 變化에 脆弱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表 2 참조).

## 2. 貧困經驗에 있어서의 男女差異

女子老人들의 貧困率은 26%로 男子老人들의 15%보다 훨씬 높다(表 4 참조). 또한 많은 女子老人들이 '中間에 놓인 사람들'이다. 즉, 30%의 女子老人들이 公式的인 貧困線과 貧困線 200%사이의 所得을 갖고 있다.

3) 본 資料는 應答者의 個人所得과 家口所得 각각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물론 個人所得과 家口所得이 同一한 경우도 있음).

〈表 3〉 個人所得과 家口所得에 있어서의 婚姻狀態別 男女差異의 統計的 有意性

變數들	個人所得			
	有配偶	死別	離婚	未婚
절편	10.103*** (0.91)	10.939*** (0.72)	10.026 (1.4)	9.288*** (1.9)
教育水準	0.111*** (0.02)	0.084*** (0.02)	0.126*** (0.03)	0.135*** (0.03)
人種	-0.246 (0.20)	-0.550*** (0.14)	-0.314 (0.23)	-0.078 (0.37)
年 齡	-0.013 (0.01)	-0.025** (0.01)	-0.021 (0.03)	-0.019 (0.02)
性	-0.013*** (0.12)	-0.518*** (0.13)	-0.595** (0.19)	-0.478 (0.29)
子女數	-0.032 (0.03)	-0.041 (0.02)	0.002 (0.05)	-
R <sup>2</sup>	0.17	0.11	0.12	0.22
d.f.	5	5	5	4
N	479	721	306	80
變數들	家口所得			
	有配偶	死別	離婚	未婚
절편	11.000*** (0.86)	11.293*** (0.73)	11.794*** (1.4)	8.986*** (2.0)
教育水準	0.095*** (0.02)	0.083*** (0.02)	0.096*** (0.03)	0.144*** (0.04)
人種	-0.168 (0.19)	-0.581*** (0.14)	-0.698*** (0.21)	-0.082 (0.41)
年 齡	-0.030** (0.01)	-0.028** (0.01)	-0.039* (0.02)	-0.016 (0.03)
性	-0.096 (0.12)	-0.566*** (0.14)	-0.390* (0.18)	-0.523 (0.32)
子女數	-0.018 (0.03)	-0.047* (0.02)	0.002 (0.04)	-
R <sup>2</sup>	0.10	0.12	0.15	0.23
d.f.	5	5	5	4
N	4,398	688	289	72

註: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s)임.

\*\*\* p<0.001, \*\* p<0.01, \* p<0.05

〈表 4〉 貧困經驗에 있어서의 男女差異

(단위: %)

性	빈곤선대비 가구소득의 %				합계
	100% (빈곤층)	100~125% (중간에 놓인 사람들)	125~200%	200%+ (안정층)	
男子	15.2	5.2	16.3	63.3	100.0
女子	25.8	8.4	21.4	44.4	100.0

男子老人들의 경우 所得이 配偶者의 죽음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死別이 곧 貧困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반면, 女子老人들에게는 配偶者의 喪失은 곧 經濟的 安寧의 喪失이다(Meyer, 1990). 따라서 사별의 경우 貧困經驗에 있어서의 有意味한 男女差異가 나타난다(表 5 참조).

〈表 5〉 貧困經驗에 있어서의 婚姻狀態別 男女差異의 統計的 有意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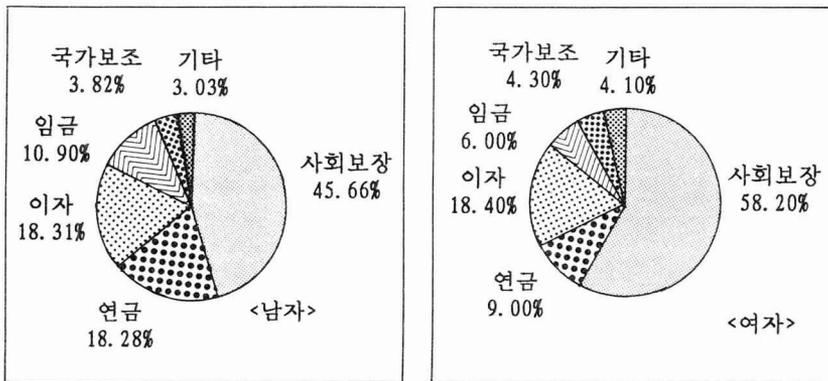
變數들	貧困			
	有配偶	死別	離婚	未婚
절편	-3.306 (2.2)	-2.350 (1.3)	-2.624 (2.3)	-1.066*** (4.3)
教育水準	-0.171*** (0.05)	-0.220*** (0.03)	-0.168*** (0.05)	-0.322** (0.11)
人種	0.445 (0.44)	1.120*** (0.23)	1.368*** (0.33)	2.274** (0.83)
年 齡	0.039 (0.03)	0.016 (0.01)	0.037 (0.03)	0.012 (0.06)
性	0.201 (0.31)	1.086*** (0.28)	-0.088 (0.31)	1.286 (0.77)
子女數	-0.025 (0.07)	0.159 (0.04)	0.119 (0.07)	-
Model $\chi^2$	21.251	151.081	57.775	34.050
d.f.	5	5	5	4
N	437	680	286	71

註: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s)임.

\*\*\* p<0.001, \*\* p<0.01, \* p<0.05

### 3. 所得源에 있어서의 男女差異

각 所得源의 構成比, 所有有無, 額數의 세가지 側面을 살펴봄으로써 각 所得源의 相對的 및 絶對的인 重要性에 있어서의 男女差異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構成比를 살펴보면, 女子老人과 男子老人 모두에게 있어서 社會保障이 가장 중요한 所得源이며, 그 다음이 利子, 年金, 賃金의 順序이다(圖 1 참조).



[圖 1] 所得構成에 있어서의 男女差異

지난 30년간 個人所得의 構成은 많이 변했다. 은퇴연령의 低下<sup>4)</sup>로 인하여 個人所得에 있어서 賃金이 갖는 비중은 매우 낮아졌다. 1967년에는 賃金이 所得의 거의 절반을 형성하고 있었으나(Ross et al., 1987), 본 연구의 경우는 賃金이 個人所得의 10%도 채 못되고 있다.

4) 이러한 1960년대 이후의 早期隱退의 傾向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의 隱退는 62세를 전후로 가장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나(이는 社會保障額이 支拂되기 시작하는 나이이다), 障碍를 가진 老人들이나 私的 年金을 받을 수 있는 就業期間을 이미 충족시킨 사람들은 이보다 더 일찍 隱退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社會保障과 年金은 그 重要性이 增大되어 왔다. 政府의 持續的인 社會保障額의 增大로 인해 社會保障은 1970년대 후반부터 老人들의 지배적인 所得源이 되어 왔다. 본 研究의 경우 社會保障額이 收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女子老人들이 社會保障에 많이 依存하고 있어, 全體所得의 58.2%가 社會保障所得이다. 반면, 女子老人들의 年金所得 依存도는 낮다. 男子老人들의 경우 年金所得이 전체所得의 18%인데 비하여, 女子老人들은 오직 9%에 불과하다.

둘째로, 所得源別 소유유무를 살펴보면 男女老人 모두 3/4이 社會保障所得을 갖고 있고, 대부분의 老人들이 利子所得을 갖고 있다. 構成比에서 보인 年金所得에 있어서의 男女差異가 다시 보이고 있다. 男子老人들의 42%가 年金所得을 갖고 있는데 비하여, 女子老人의 경우는 男子老人들의 절반정도인 23%만이 年金所得을 갖고 있다. 賃金の 경우는 男子老人의 19%와 女子老人의 9%가 所得源으로 갖고 있다. 즉, 현재 일을 하고 있는 老人이 男子老人의 경우 19%, 女子老人의 경우는 9%인 것이다. 年金이 청·장년기의 勞動參與에 있어서의 男女差異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賃金は 현재의 勞動參與에 있어서의 男女差異를 반영하는 것이다(表 6 참조).

<表 6> 各 所得源의 所有有無

(단위: %, 명)

	賃金	社會保障	年金	利子	補助	其他	應答者數
男子	18.6	74.9	42.1	78.5	6.9	7.4	575
女子	9.2	71.9	23.1	71.1	6.1	6.4	1,007

마지막으로, 각 所得源別 絕對所得額數를 살펴보면 결혼경험이 있는 경우, 男子老人들이 女子老人들 보다 社會保障所得이 많을 뿐만 아니라 年金所得 또한 더 많이 갖고 있다(表 7 참조). 利子所得의 경우는 配偶者가 있는 老人 또는 死別한 老人들 사이에서 男女老人간의 큰 差

異를 볼 수 있다. 종합하면, 結婚의 경험이 있는 老人들 사이에서는 (즉, 未婚老人들만을 제외하고는) 男子老人들이 거의 모든 所得源에 있어서 女子老人들보다 絕對所得額이 많다.

이와 같은 分析은 老人의 所得規模와 構成에 있어서 男女差異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所得의 측면에서 있어서 女子老人이 男子老人보다 낮은 수준에 놓여 있다. 女子老人은 男子老人의 個人所得의 절반밖에는 갖고 않으며, 특히 年金所得額은 男子老人보다 훨씬 적다. 社會保障所得의 경우, 女子老人들이 男子老人들보다 적은 額數를 받지만 其他 所得額이 적으므로 상대적으로 社會保障所得에 과도하게 依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女子老人들이 家口所得에의 寄與도가 낮은 편이며, 貧困經驗率도 높다.

〈表 7〉 社會保障收入, 年金收入, 利子收入規模에 있어서의 男女差異

變 數 들	社會保障所得			
	有配偶	死 別	離 婚	未 婚
절 편	9.188** (0.65)	9.382*** (0.43)	8.435*** (0.74)	7.181*** (1.1)
教育水準	0.011*** (0.01)	0.034*** (0.01)	0.047** (0.02)	-0.003 (0.02)
人 種	-0.115 (0.14)	-0.183*** (0.08)	0.005 (0.12)	-0.028 (0.20)
年 齡	-0.004 (0.01)	-0.013** (0.00)	-0.004 (0.01)	0.013 (0.01)
性	-0.552*** (0.09)	-0.207* (0.01)	-0.200* (0.10)	0.107 (0.16)
子 女 數	-0.001 (0.02)	-0.023 (0.01)	-0.027 (0.02)	-
R <sup>2</sup>	0.09	0.06	0.06	0.02
d.f.	5	5	5	4
N	420	661	258	70

〈表 7〉 계속

變數들	年金所得			
	有配偶	死別	離婚	未婚
절편	2,125.8* (9481.0)	2,981.7 (5,456.3)	4,340.8 (1,4191.2)	1,706.3 (23,136.1)
教育水準	1,048.2*** (203.9)	433.1** (140.6)	1,011.4*** (248.0)	1,242.0 (449.8)
人種	-504.6 (2150.0)	430.3 (1,256.2)	1,286.4 (2,210.2)	5,314.4 (9,388.3)
年 齡	-302.4* (119.1)	28.3* (61.2)	-11.208 (182.0)	-86.38 (290.6)
性	-4668.8** (1521.4)	-2,725.1** (945.8)	-5,817.0*** (1,668.0)	-2,513.7 (3,205.7)
子女數	440.8 (356.2)	-187.2 (192.3)	313.6 (450.3)	-
R <sup>2</sup>	0.18	0.08	0.22	0.29
d.f.	5	5	5	4
N	192	262	102	31

變數들	利子所得			
	有配偶	死別	離婚	未婚
절편	4.868*** (1.2)	6.249*** (0.86)	4.014*** (1.5)	5.646 (2.4)
教育水準	0.210*** (0.03)	0.136*** (0.02)	0.175*** (0.03)	0.204 (0.05)
人種	-1.305*** (0.25)	-1.222*** (0.16)	-1.032*** (0.24)	-1.302 (0.48)
年 齡	-1.305*** (0.25)	-0.002 (0.01)	-0.018 (0.02)	-0.010 (0.03)
性	-0.370* (0.16)	-0.369* (0.16)	-0.329 (0.20)	-0.260 (0.38)
子女數	-0.072 (0.04)	-0.146*** (0.03)	-0.064 (0.05)	-
R <sup>2</sup>	0.26	0.23	0.26	0.38
d.f.	5	5	5	4
N	449	290	229	76

註: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s)임.

\*\*\* p<0.001, \*\* p<0.01, \* p<0.05

한편, 이러한 個人所得에 있어서의 男女差異는 결혼한 적이 없는 老人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老人들에게 있어서 統計적으로 중요하다. 이는 未婚의 老人들에게는 男子나 女子 모두 家族과 연관된 役割로 인한 勞動市場參與의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家族과 연관된 役割이 女性的 勞動參與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經濟的 資源에 있어서의 男女差異는 縮小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IV. 所得의 決定要因들<sup>5)</sup>

##### 1. 所得規模와 貧困經驗의 決定要因에 있어서의 男女差異

<表 8>에 의하면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일과 관련된 요인들이 男女 모두에게 큰 影響력을 갖고 있지 않다. 男子老人의 경우, 職業의 사회경제적 점수와 就業期間이 所得規模에 유의한 影響력을 갖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女子老人들 사이에서도 就業類型은 所得規模를 결정하는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다. 오히려 背景變數들과 婚姻狀態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男女老人 모두에게 教育의 影響력은 매우 크다. 이러한 사실들은 所得規模가 職業보다는 教育水準에 종속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教育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취업기간 동안 임금을 더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Mincer, 1974), 더 안정적이고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職業을 갖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Kalleberg and Hudis, 1979), 教育의 몇몇 혜택은 老後로 연기되곤 한다. 따라서 教育이 은퇴전보다 老後에 더 큰 經濟的 補償을 가져오게 된다.

人種과 年齡이 女子老人들의 所得規模에 미치는 影響력이 男子老人의 경우보다 더 크다는 것이 흥미롭다. <表 8>에 의하면 老齡이며 少數人

5) 또한, 未婚의 老人들은 結婚經驗이 있는 老人들과는 生涯史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장의 分析에서는 除外하였다.

種인 女子老人의 경우 經濟的 狀況이 最惡이 된다. 高齡의 黑人女子老人이 미국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集團인 것이다(Minkler and Stone, 1985).

〈表 8〉 所得規模와 貧困經驗의 決定要因에 있어서의 男女差異

變數들	個人所得 <sup>1)</sup>		家口所得 <sup>1)</sup>		貧困狀態 <sup>2)</sup>	
	男子	女子	男子	女子	男子	女子
절 편	9.864*** (0.77)	9.373*** (0.71)	10.589*** (0.73)	11.560*** (0.67)	-1.133 (1.9)	-2.095 (1.3)
教育水準	-0.124*** (0.02)	0.082*** (0.02)	0.119*** (0.02)	0.079*** (0.02)	-0.145*** (0.05)	-0.228*** (0.03)
人 種	-0.346* (0.17)	-0.500** (0.14)	-0.358* (0.16)	-0.525*** (0.13)	1.166*** (0.34)	1.046*** (0.24)
年 齡	-0.025* (0.01)	-0.024** (0.01)	-0.027** (0.01)	-0.036*** (0.01)	0.020 (0.02)	0.028 (0.02)
子女數	0.016 (0.03)	-0.046 (0.03)	0.015 (0.03)	-0.057* (0.02)	-0.024 (0.06)	0.146*** (0.04)
離 婚	-0.142 (0.22)	0.651*** (0.18)	-0.550* (0.22)	-0.642*** (0.17)	1.028* (0.44)	1.193*** (0.36)
死 別	0.007 (0.14)	0.461*** (0.11)	-0.350* (0.14)	-0.771*** (0.11)	0.028 (0.34)	1.446*** (0.26)
SEI	0.046 (0.04)	-	0.008 (0.00)	-	-0.00029 (0.13)	-
就業期間	-0.401 (0.27)	-	-0.428 (0.26)	-	-0.00014 (0.65)	-
兼職型	-	-0.074 (0.16)	-	0.159 (0.15)	-	-0.448 (0.28)
中斷型	-	-0.029 (0.16)	-	-0.034 (0.15)	-	-0.462 (0.28)
不規則型	-	-0.108 (0.21)	-	0.037 (0.19)	-	-0.203 (0.36)
R <sup>2</sup>	0.20	0.09	0.23	0.21	86.982 <sup>2)</sup>	192.809 <sup>2)</sup>
d.f.	-	-	-	-	8	921
N	503	814	473	58	471	753

註: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Standard errors)임.

\*\*\* p<0.001, \*\* p<0.01, \* p<0.05

1) 個人所得과 家口所得의 경우 편향된 분포(positively skewed distribution) 때문에 변형된 형태(logarithmic transformation)로 분석에 사용됨.

2) 貧困의 경우는 로지스틱 분석이 이루어졌으므로 R<sup>2</sup>값이 아니라 Model  $\chi^2$ 값임.

個人所得의 경우 女子老人이 婚姻狀態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데 비하여 男子老人들 사이에서는 婚姻狀態에 따른 所得規模의 차이가 전혀 없다. 그러나 家口所得의 경우는 所得規模와 婚姻狀態의 관계가 달라진다. 家口水準에서 볼 때 男女老人 모두 離婚 또는 死別한 사람들이 結婚한 老人들보다 所得을 적게 갖고 있다. 夫婦는 그들의 所得을 합치기 때문에 離婚 또는 死別한 老人들보다 所得을 많이 갖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死別과 離婚이 女性에게 보다 더 큰 影響力을 갖는다는 것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점이다. 비록 女子와 男子가 한 家族에 있을 때는 동일한 所得을 공유하지만, 配偶者의 喪失이 단기간 안에 所得規模를 縮小시킬 가능성은 女子들에게 훨씬 높다. 이러한 사실은 生涯史를 통한 經濟的 安寧의 變化를 살펴봄에 있어서, 家族이 아니라 個人을 單位로 한 研究가 필요함을 의미한다(Burhauser and Duncan, 1989).

貧困經驗의 決定要因들도 所得規模에서와 비슷하다. 所得規模는 illet에서의 役割遂行이 아니라 背景變數들과 婚姻狀態와 밀접히 聯關되어 있다. 男子老人들은 婚姻狀態에 의해 크게 영향받지 않는 반면, 女子老人들에게 있어 婚姻狀態는 절대적인 所得規模와 充分性(즉, 빈곤선보다 많은 所得)이라는 측면에서 經濟的 安寧과 밀접히 聯關되어 있다.

## 2. 所得構成의 決定要因에 있어서의 男女差異

거의 대부분의 老人들이 社會保障과 利子所得을 갖고 있으므로, 이 두 所得의 規模와 全體所得에 대한 寄與도가 從屬變數로 사용되었다. 반면에 年金의 경우는 절반 정도만 갖고 있으므로, 所有 有無를 從屬變數로 사용하였다. <表 9>에 의하면, 男子老人들에게는 就業歷이 社會保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즉 職業의 種類와 就業期間이 社會保障額數와 의존도에 統計的으로 유의한 影響力을 갖고 있다.

반면 女子老人들에게 있어서는 婚姻狀態가 매우 중요한 變數이다.

死別 또는 離婚한 女子老人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社會保障금을 많이 받고 있으며, 社會保障收入에의 依存度 또한 높다. 특히 死別한 女子老人들의 社會保障額이 많은데, 이는 사별전에는 남편수혜액의 반을 받다가, 死別後에는 男便의 社會保障惠澤의 100%를 자신의 이름으로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就業類型은 女子老人들의 社會保障依存度에 큰 影響力을 갖고 있지 않다. 이는 女子老人들이 주로 자신의 就業에 기초한 社會保障受惠보다는 남편에게 經濟的으로 依存的인 아내로서의 社會保障惠澤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女子老人들이 그들의 청·장년기때 낮은 수준의 賃金을 받으며, 就業 또한 간헐적이라는 데 기인하는 것이다(Holden, 1989). 그들이 자신의 就業經驗에 기초하여 받을 수 있는 社會保障受惠가 配偶者受惠보다 크다면 자신의 就業歷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社會保障을 받으려 할 것이다.

男子老人들에게 일과 관련된 變數들이 年金所得有無에 큰 影響力을 갖고 있지 않는 반면, 女子老人의 경우는 勞動市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年金所得을 갖을 確率이 높다. 이에 덧붙여 男子의 경우는 달리 女子老人들은 就業經驗뿐만 아니라 家族과 연관된 要因들에 의해서도 영향받는다. 離婚하거나 死別한 女子老人들이 有配偶老人보다 年金所得을 갖을 確率이 높은 반면, 子女數가 많을수록 年金所得을 갖을 확률이 낮다(表 9 참조).

家族과 연관된 變數는 利子所得에 있어서도 男子老人들에게 큰 影響力을 갖고 있지 않다. 반면 女子老人들에게는 家族과 연관된 變數인 子女數와 婚姻狀態가 利子所得의 規模를 결정하는 중요한 決定要因이다(表 10 참조). 死別 또는 離婚한 女子老人들이 有配偶 상태의 女子老人보다 상당히 적은 利子所得을 갖고 있다. 따라서 3가지 所得源 모두에 있어서 婚姻狀態가 男子보다는 女子에게 큰 影響力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表 9〉 社會保障所得 依存度와 社會保障所得規模, 年金所得有無의 決定要因에 있어서의 男女差異

變數들	社會保障所得依存度		社會保障額		年金所得 有無 <sup>1)</sup>	
	男子	女子	男子	女子	男子	女子
절편	0.195 (0.18)	0.538 (0.17)	10.571 (0.80)	8.159 (0.43)	-1.581 (1.3)	-1.883* (0.74)
教育水準	-0.022** (0.00)	-0.031*** (0.00)	-0.011 (0.02)	0.039*** (0.01)	0.183*** (0.04)	0.093*** (0.02)
人種	0.051 (0.34)	0.001 (0.03)	-0.030 (0.18)	-0.219* (0.09)	-0.184 (0.28)	-0.479** (0.16)
年 齡	0.077** (0.00)	0.005* (0.01)	-0.018 (0.02)	-0.009 (0.01)	-0.013 (0.02)	-0.009 (0.01)
子女數	-0.001 (0.01)	0.009 (0.01)	0.025 (0.03)	-0.002 (0.10)	0.024 (0.05)	-0.062* (0.03)
離 婚	-0.015 (0.05)	0.057 (0.04)	-0.112 (0.04)	0.573*** (0.11)	-0.398* (0.38)	0.735*** (0.19)
死 別	-0.011** (0.01)	0.031 (0.03)	0.088 (0.15)	0.496*** (0.07)	-0.114 (0.24)	0.760*** (0.13)
SEI	0.025** (0.01)	-	0.122*** (0.04)	-	-0.070 (0.07)	-
就業期間	0.148* (0.06)	-	-0.076* (0.27)	-	1.890 (0.47)	-
兼職型	-	-0.061 (0.04)	-	0.017 (0.10)	-	0.827*** (0.20)
中斷型	-	-0.035 (0.04)	-	0.047 (0.10)	-	0.713*** (0.20)
不規則型	-	-0.054 (0.05)	-	-0.158 (0.13)	-	0.629** (0.24)
R <sup>2</sup>	0.19	0.12	0.04	0.10	60.353 <sup>1)</sup>	117.545 <sup>1)</sup>
d.f.	-	-	-	-	8	9
N	499	805	611	748	500	806

註: 괄호안의 숫자는 standard errors

\*\*\* p<0.001, \*\* p<0.01, \* p<0.05

1) 연금소득 유무의 경우는 로지스틱 분석이 이루어졌으므로 R<sup>2</sup>값이 아니라 Model  $\chi^2$ 값임.

〈表 10〉 利子所得 依存度와 利子所得規模의 決定要因에 있어서의 男女差異

變數들	利子所得依存度		利子所得額	
	男子	女子	男子	女子
절편	-0.037 (0.11)	-0.013 (0.10)	4.475 (1.0)	5.348 (1.2)
教育水準	-0.000 (0.00)	0.011 (0.00)	0.101*** (0.03)	0.130*** (0.03)
人種	-0.063 (0.02)	-0.020 (0.02)	-1.329*** (0.22)	-0.616 (0.23)
年 齡	0.002 (0.00)	0.002 (0.00)	0.010 (0.02)	-0.003 (0.01)
子女數	-0.004 (0.00)	-0.004 (0.00)	-0.031 (0.04)	-0.008* (0.04)
離 婚	-0.040 (0.03)	-0.171*** (0.03)	-0.564 (0.29)	-0.785* (0.29)
死 別	-0.029 (0.02)	-0.117*** (0.02)	-0.304 (0.19)	-0.509** (0.19)
SEI	0.014 (0.01)	-	0.248*** (0.05)	-
就業期間	0.063 (0.04)	-	0.305 (0.27)	-
兼職型	-	0.005 (0.02)	-	0.057 (0.26)
中斷型	-	-0.018 (0.02)	-	0.028 (0.26)
不規則型	-	0.005 (0.03)	-	-0.206 (0.34)
R <sup>2</sup>	0.07	0.13	0.32	0.08
N	499	805	481	814

註: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s)임.

\*\*\* p<0.001, \*\* p<0.01, \* p<0.05

이상의 分析結果는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첫째로, 教育水準이나 人種과 같은 背景變數가 男女老人 모두에게 所得의 規模에 막대한 影響力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은퇴전의 階層化가

老後에도 持續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로, 背景變數외에도 女子老人들에게는 婚姻狀態가 중요한 決定要因이다. 死別 또는 離婚한 女子老人들은 家口所得이 적고 貧困率이 높다. 반면에 男子老人들에게는 婚姻狀態가 유의한 決定要因이 아니다. 또한 年金所得만이 女子老人들의 勞動力 參與에 의하여 결정될 뿐으로, 그들에게 就業類型은 아주 적은 影響力만을 갖고 있다. 반면에 男子老人들에게는 職業의 種類와, 就業期間등 일과 관련된 변수들이 社會保障所得, 年金所得등 주요 所得源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즉, 男子老人들에게는 背景的 變數와 일과 관련된 變因들이 유의미한 決定要因임에 비하여, 家族과 관련된 變數들은 큰 影響力을 갖지 못한다. 반면에 일이 아니라 家族生活이 女子老人들의 所得規模와 構成에 있어서 막대한 影響力을 갖고 있다.

## V. 結 論

지난 50년간 女性의 勞動力 參與는 급격히 增大해왔다. 특히 195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에 미국에서의 일하는 아내의 수는 8만에서 29만으로 3배이상 증대 되었다. 이는 전통적인 부인/어머니/가정주부의 역할이 급격히 變化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女性이 일을 수행하고 있는 社會的 맥락은 이러한 變化를 따라가지 못하여 왔다. 또한 男子의 일과 家庭에서의 役割 또한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女性과 男性이 일생동안 경험하는 일과 가정에서의 差異는 老後의 經濟的 資源에 影響을 미치게 된다.

본 研究는 일터와 家庭에서의 男女간의 役割 遂行의 差異가 老後의 經濟的 資源에 어떠한 影響力을 갖고 있는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研究結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女子老人의 平均 個人所得은 男子老人의 個人所得의 절반 정도이며, 특히 年金所得額은 男子

老人의 경우보다 훨씬 적다. 또한 女子老人들의 貧困經驗率이 높을 뿐만 아니라, 家口所得에의 寄與度도 낮다. 둘째로, 女子老人들이 年金所得 依存度는 낮은 반면 社會保障所得에는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셋째로, 個人所得의 경우 未婚의 老人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老人들에게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男女差異가 있다. 未婚의 경우 男女差異가 적은 것은 未婚의 女子老人들이 청·장년기에 家族과 연관된 役割로 인한 勞動市場參與의 제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家族과 연관된 역할수행으로 인한 女性勞動參與의 제한이 經濟的 資源에 있어서의 男女差異를 자겨오는 원인임을 함축하는 것이다. 넷째, 所得의 規模에 있어서 교육수준이나 인종과 같은 背景變數가 男女老人 모두에게 큰 影響을 미치고 있다. 이는 은퇴전의 階層化가 老後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과 家族과 연관된 變數가 男女老人에게 상이한 影響力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男子老人들에게는 背景的 變數와 일과 관련된 변수들이 유의미한 決定要因임에 비하여, 家族과 관련된 변수들은 큰 影響力을 갖지 못한다. 반면에 女子老人들의 所得規模와 構成에는 일이 아니라 家族生活이 큰 影響力을 갖고 있다.

이러한 所得規模와 構成에 있어서의 男女差異는 女性이 勞動參與에서 경험하는 불리함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女子들은 家庭에서 요구되는 役割에 기초하여 勞動參與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적이지 않다. 勞動力 參與의 中斷은 年金制度의 엄격한 基準을 만족시킬 수 있는 就業期間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年金惠澤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다. 그러므로 老後의 男女간의 所得差異는 은퇴전보다 오히려 더 커지는 傾向이 있다. 또한 女子老人들이 그들의 청·장년기 때 남자보다 적은 賃金을 받았고, 就業 또한 간헐적이었으므로 그들의 就業經驗에 기초하여 받을 수 있는 社會保障受惠가 配偶者受惠보다 적다. 따라서 女子老人들은 자신의 就業에 기초한 社會保障受惠보다는 남편에게 經濟的으로 依存的인 아내로서의 社會保

障惠澤을 받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男女差異는 夫婦가 所得을 합쳐서 사용하는(resource pooling) 有配偶狀態일 때는 확연히 들어나지 않다가, 婚姻狀態의 變化를 겪을 때 비로서 분명해진다.

이러한 經濟的 資源에서의 男女差異를 극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政策的 배려가 필요하다(Gonyea, 1994). 就業에 있어서의 男女差異을 減少시키려는 努力과 더불어 女性이 일과 家庭을 병행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政策, 또 女性을 동등한 경제적 파트너로 간주하며, 男女를 同一하게 保護할 수 있는 老後所得保障政策이 수행될 때만이 女性의 所得獲得에서 經驗하는 不利益이 減少될 수 있을 것이다.

### 參 考 文 獻

- Burhauser, R. and Duncan, G., "Economic Risks of Gender Roles: Income Loss and Life Events over the Life Course," *Social Science Quarterly*, Vol.70, No.1, 1989, pp.3~23.
- Crystal, S. et al., "Educational Attainment, Occupational History, and Stratification: Determinants of Later-Life Economic Outcomes", *Journal of Gerontology*, Vol.47, No.4, 1992, pp. s213~221.
- Crystal, S. and Shea, D., "Cumulative Advantage, Cumulative Disadvantage, and Inequality among Elderly People", *The Gerontologist*, Vol.30, No.4, 1990, pp.437~443.
- Duncan, G. and Smith, L., "The Rising Affluence of the Elderly: How Far, How Fair, and How Frail?",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15, 1989, pp.261~289.
- Elder, G. Jr., *Life Course Dynamics: Trajectories and Transition, 1968~1980*,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 Elder, G. Jr. and Rockwell, R., "Marital Timing in Women's Life

- Patterns", *Journal of Family History*, Vol.4, No.1, 1976, pp.34~54.
- Garfinkel, I. and McLanahan, S., "Single Mothers, the Underclasses and Social Polic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501, 1987. pp.92~104.
- Gonyea, J. G., "Making Gender Visible in Public Policy", in Thompspon, E. H., Jr.,(ed.) *Older Men's Lives*, CA, Sage, 1994.
- Hagestad, G., "Social Perspective on the Life Course", in Binstock, R. H. and George, L. K.,(eds.)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 3rd Edition, NY, Academic Press, 1990, pp.151~168.
- Holden, K., "Economic Status of Older Women: A Summary of Selected Research Issues", in Seltzer, M. and Hendricks, J., (ed.) *Health and Economic Status of Older Women*, NY, Baywood Publishing Company, 1989.
- Kalleberg, A. L. and Hudis, P. M., "Wage Change in the Late Career: A Model for the Outcomes of Job Sequences", *Social Science Research*, Vol.8, No.1, 1979, pp.16~40.
- Meyer, M., "Family Status and Poverty among Older Women: The Gendered Distribution of Retirement Income in the Untied States", *Social Problems*, Vol.37, No.4, 1990, pp.551~563.
- Mincer, J. and Ofek, H., "Interrupted Work Careers: Depreciation and Restoration of Human Capital",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17, 1982, pp.3~24.
- Minkler, M. and Stone, R., "Feminization of Poverty and Older Women", *The Gerontologist*, Vol.25, No.4, 1985, pp.351~357.
- O'Rand, A. M. and Henretta, J., "Midlife Work History and Retirement", in Szinovacz, M.,(ed.) *Women's Retirement:*

- Policy Implications of Recent Research*, Beverly Hills, CA, Sage 1982.
- Pearce, D., "The Feminization of Poverty: Women, Work and Welfare", *Urban and Social Change Review*, Vol.11, 1978, pp.28~36.
- Rosenthal, C., "Kinkeeping in the Familial Division of Lab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7, No.4, 1985, pp.965~974.
- Rossi, A., *Gender and Life Course*, Hawthorne, NY, Aldine de Gruyter, 1985.
- Smeeding, T. M., "Economic Status of the Elderly", in Binstock, R. H. and George, L. K.,(eds.)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 3rd Edition, CA, Academic Press, 1990.
- Streib, G. and Binstock, R.,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Change in the Field", in Binstock, R. H. and George, L. K.,(eds.)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 3rd Edition, CA, Academic Press, 1990.
- Sweet, J. A., Bumpass, L. and Call, C., *The Design and Content of the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NAFH111)*, 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1988.
- Thompson, E. H., Jr., *Older Men's Lives*, CA, Sage, 1994.
- Velsor, E. and O'Rand, A., "Family Life Cycle, Work Career Patters, and Women's Wages at Mid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6, No.2, 1984, pp.365~373.

Summary

---

## Gender Differences in Income Amount and Composition of American Elderly

*Kyunghee Chung*

---

This study documents gender differences among American elderly based on income using the data gathered from the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grouped into several points. The first finding is that elderly women as a whole have a lower income level than elderly men. Elderly women have only half of elderly men's personal income and elderly women have a higher incidence of poverty than elderly men. For both Social Security income and pension income, gender differences among the elderly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xcept for the never-married elderly. Elderly men have not only more Social Security income but also more pension income than elderly women, again except for the never-married.

Second, for both elderly men and elderly women, the background variables of education level and race have tremendous effects on income amount. This finding suggests that pre-retirement stratification continues into later life.

Third, in addition to background variables, the impact of marital status is not only substantial but also different for elderly men and women. Above all, marriage benefits the elderly where income is concerned. On the other hand, widowhood and divorce have different effects on elderly men and women. For elderly men, widowhood and divorce do not significantly reduce their economic resources. Widowed or divorced women, however, have less

household income and higher incidence of poverty than elderly women with a husband.

Finally, for elderly women, work patterns seem to have only minor effects: only pension income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degree of their previous labor force participation. For elderly men, the socio-economic index score and work duration have big a correlation with Social Security income and pension income.

In sum, for elderly men, background variables, socio-economic index score, and work duration are important determinants; family life does not have meaningful effects on their income. On the other hand, family life rather than work life has a tremendous impact on the income of elderly women.